

碩士學位論文

韓國의 詩歌와 神話에 있어서의 「님」 研究  
- 金素月 詩의 「님」에 대한 通時的 究明 -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 熙 哲

1987年 月 日

韓國의 詩歌와 神話에 있어서의 「님」 研究  
- 金素月 詩의 「님」에 대한 通時的 究明 -

指導教授 梁 重 海

金 熙 哲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87年 12月

金熙哲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1987年 12月

---

THE 'NIM'S STUDY OF KOREAN POETRY AND MYTHS  
- DIACHRONIC INVESTIGATION ABOUT 'NIM'S OF KIM SO-WEAL'S POEMS. -

Hee-chul, Kim  
(Supervised by Professor Choong-Hae, Y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87

## 目 次

I. 緒 言 .....	1
II. 「님」의 語義와 神話的 解釋의 可能性 .....	6
III. 詩歌에 있어서의 「님」의 存在 樣相 .....	9
1. 「님」의 不在로 본 存在 樣相 .....	11
2. 性格으로 본 存在 樣相 .....	15
3. 類型으로 본 存在 樣相 .....	17
4. 存在 樣相에 나타난 「님」의 共通點 .....	19
IV. 建國神話 속의 英雄的 人物과 「님」의 相關性 .....	20
1. 英雄的 人物의 存在 樣相 .....	21
2. 英雄的 人物과 「님」의 相關性 .....	31
V. 金素月의 詩에 나타난 「님」의 正體 .....	31
1. 詩歌와의 關係에서 본 「님」의 正體 .....	33
2. 英雄的 人物과의 關係에서 본 「님」의 正體 .....	35
VI. 結 言 .....	37
參考文獻 .....	39
Summary .....	42

## I. 緒 言

金素月の 詩를 읽은 讀者는 그것에 대해 우선 친숙감을 느끼고 現在까지 많이 애송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친숙감을 느끼고 많이 애송되어 온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들로부터 흔히 들어 왔거나 혹은 많이 불러 왔던 民謠調의 이야기나 民謠, 또는 이진희의 「가시리」 등의 古典作品에 나타나는 恨스런 離別의 情緒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고, 金素月은 이러한 情緒를 잘 잘린 代表的인 詩人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데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

金素月에 대한 研究도 대체로 이런 점과 관련하여 律格과 情緒에 관한 설명이 많은데, 이것들을 좀 더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7·5調의 民謠의인 리듬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民謠調가 갖는 音樂性은 讀者나 일반 대중에게 쉽게 親和感을 준다는 점이다.<sup>1)</sup>

둘째 離別에서 비롯되는 恨의 情緒가 傳統的이고 보편적인 情緒여서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金素月은 이를 詩 속에 잘 잘리고 있다는 점이다.<sup>2)</sup> 이것을 說明하기 위해 「가시리」 등의 古典作品과 연결시키기도 하고<sup>3)</sup>, 「民謠의 詩化」라 하기도 하고<sup>4)</sup>, 「아리랑」과 같은 民謠에 나타나는 情緒와도 같은 情緒로 보기도 한다.<sup>5)</sup>

이런 研究 結果에 대해 대체로 아직까지 수긍하는 편이어서 金素月을 가리켜 ‘民謠詩人’, ‘國民詩人’, ‘民衆詩人’이라고 하는 데에도<sup>6)</sup>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우리 민족에게 이어지는 恨스런 離別의 情緒를 近者에 와서 金素月만큼 잘 나타낸 시인도 그리 흔하지 않고,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이 金素月의 詩 한 편쯤은 알고 있을 정도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많이 애송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認定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 1) ① 鄭漢模: “近代民謠와 두 詩人” 「文學思想」, 1973, 5월호, p.274. ② 오탁번: “韓國現代詩史의 對立的 構造”, 고려대박사학위논문, 1982, p.35. ③ 趙南翼: 「現代詩解說」, 世運文化社, 1979, p.114. ④ 金顯承: 「韓國現代詩解說」, 關東出版社, 1979, p.30. 등. 7·5調가 日本에서 인유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金大宰: “金素月の 「집동애」”, 「한국현대시작품론」 文章社, 1981, pp.106~109. 참조 등), 이 7·5調를 제외해서 보더라도 음보 등에서 민요 율격의 「계백 배치는 변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素月 詩에 民謠的 律格이 얼마당히 있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통적이다.
- 2) 林永煥: “金素月詩研究”, 「국어국문학」 제96호, 국어국문학학회, 1986, p.96. ② 鄭漢淑: 「現代韓國文學史」, 高麗大出版部, 1983, p.82. ③ 林基熙: “金素月詩作品的 正體”, 「韓國現代作家·作品論」, 二友出版社, 1982, p.80. 등.
- 3) 趙南翼: 앞의 책, p.115.
- 4) 金大宰: 앞의 책, p.105. 「집동애」, 「春香과 李道命」, 「물아름」, 「황변개 노래」 등은 民謠에서 詩化한 것으로 보고 있다.
- 5) 註3 참조.
- 6) 趙南翼: 앞의 책, p.113, p.124. 참조.

筆者도 金素月이 우리 민족에게 이어지는 情緒 가운데 하나인 離別의 情恨을 잘 表現한 代表的인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데에는 변 의의가 없으나, 여태 많은 研究가 先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명확히 究明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離別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小說이라면 主人公의인 登場人物로 볼 수 있는 「님」과 作中 話者의 關係를 잘 究明되어야 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단지 民謠나 「가시리」 등의 古典作品에 걸어서 드러난 情緒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詩에서 「님」과 作中 話者에게 「나」라는 登場人物를 사이에서 있었던 事件中에 하나가 離別이고 보면, 마땅히 「님」과 作中 話者라는 人物의 分析을 통해 이 問題를 究明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本 研究의 目的은 「님」과 作中 話者 두 人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存在와 不在의 關係 究明을 통해 金素月 詩에 나타나는 「님」의 問題를 通時的으로 고찰해 보려는 데에 궁극적으로 그 目的이 있다.

그런데 筆者는 金素月 詩 속에 나타나는 「님」에 대한 問題를 풀어 나가기에 앞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앞서도 밝혔지만 여러 古典作品에서도 「님」이 登場하고 있다는 점과 筆者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金素月의 詩에 나타나는 「님」과 性格이나 類型面에서 비슷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建國神話에 나오는 英雄的인 人物과도 英雄的 人物의 不在라든가 하는 면이 흡사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의문은 다음과 같다.

- ① 金素月 詩에 나타난 「님」은 우리 詩歌에 通時的으로 나타나는 「님」과 「님」이란 詩語로 같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對象으로 볼 수는 없는가.
- ② 우리 詩歌에 나타난 「님」과 비슷한 象徴의 意味를 지닌 같은 맥락이라면 金素月 詩에 나타난 「님」과의 相關性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 ③ 이 相關性을 「님」과 作中 話者라는 人物 究明에 있어 「님」의 不在라든가 하는 따위의 中心話素로 나누어 構造的으로 一致하는 것임을 밝힐 수는 없는가.
- ④ 「님」과 作中 話者가 우리 詩歌에 반복된 登場人物이라면 근원적으로는 神話的 人物에 대한 無意識의 再現이라는 점에서 神話 속의 人物과 相關性은 없는가.
- ⑤ 詩歌에서 通時的으로 나타나는 「님」과 神話 속에 「님」의 찬란함이나 絕對性에 있어 흡사하다고 보아지는 天上界의 英雄的 人物을 통해 金素月 詩에 나타나는 「님」을 설명할 수는 없는가.

이 의문에 대해 筆者는 通時的으로 「님」이 登場하는 詩歌와 神話를 추적해 본 끝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많은 評者나 論者들이 우리 문학에 나타나는 「님」에 대해 서로 유사한 상징에 의한 공통적인 심상과 관련하여 恨스런 離別의 情緒가 보편적이라는 것이 지적된 점이나<sup>7)</sup> 「님」

7) 註2 참조.

의 不在에 따른 離別의 狀況이 공통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 詩歌에 通時的으로 나타난 「님」과 金素月 詩에 나타난 「님」은 일단은 같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우리 문학 전반에 걸쳐 자주 나타나는 「님」을 通時的으로 살펴 보는 일이 先行된 후에 金素月 詩에 나타나는 「님」을 究明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金素月 詩에 나타난 「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뭇잎 개개의 크기나 빛깔만 살펴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문학의 始源을 說話文學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sup>8)</sup> 문학은 人類의 始源意識이 잠재해 있는 神話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의 가지」란<sup>9)</sup> 책이 나오므로 해서 神話는 단지 허망한 이야기, 미신 등의 이야기라는 종래의 통설을 깨고 神話를 구성하는 深層에는 人類의 공통적인 사고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엘리어트의 「황무지」만 하더라도 神話적인 내용과 소재가 그 詩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神話와 문학을 따로 분리해서 다루려는 경향이 짙다 보니, 現代文學과 口碑文學에 대한 접목은 아직 이렇다 하게 이루어진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神話의 人物과 「님」의 關係를 究明해 놓은 것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지 몇 부분에서 神話 등의 說話와 관련하여 趙東一이 英雄의 一生을 통해 古典作品의 主人公과 일치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든가<sup>10)</sup>, 現代詩의 경우에 檀君神話의 「동굴」의 原型을 통해 李相和 詩에 나타난 「침실」등과 결부시켜 자신의 삶을 時代的 現實에서 벗어나 詩 속에서 內面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內的 主觀主義’를 「동굴」의 原型으로 說明하고 있는 것<sup>11)</sup>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옹의 분석 심리학인 「原型無意識」에 따르면, 人類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은 무의식 중에 과거로부터 전수된다고 하며, 이 原型無意識의 상징적 체계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神話이고 근본적인 神話가 시대마다 유사한 모습으로 再生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原型無意識에 대한 상징적 체계는 문학 작품에서도 시대마다 조금 변모되더라도 유사한 상징적 체계로 再生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그것은 문학이 인간의 內面에 있는 情緒를 言語나 文字 등의 표현 수단을 빌어 表現한 것이라면 마음 속 깊이 잠재해 있는 無意識이 반영된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原型은 적어도 시대를 초월하여 다소의 변모는 있을지언정 共通的인 思考와 技能으로 나타나는 無意識의 心像의 觀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 張德順: 「韓國文學史」, 同和文化社, 1975, pp. 23~61. 참조. 口碑文學을 우리 文學의 始源으로 다루고 있다. (第一章)

9) James Frazer: 「The Golden Bough」, London: Macmillan, 1911.

10) 趙東一: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第十輯, 東亞文化研究所, 1971.

11) 文德守: “李相和와 魯漫主義”, 「韓國現代作家·作品論」, 二友出版社, 1982, pp. 105~112. 참조.

12) 李商燮: 「문학연구의 방법」, 探究堂, 1983, p. 183. 註를 통해서 옹의 「분석심리학과」, 「창대인의 일흔주위」 등에서 바탕이 된 이론으로 문학 비평에 성공을 거둔 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神話적인 상징 체계가 문학 작품에도 再生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 문학에 나타나는 「님」을 時代를 초월하여 通時的으로 登場해 왔고, 「님」의 不在는 公同적인 情愴이기도 하면, 作中 話者와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離別の 情愴도 時代를 초월하여 公同적인 情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原型無意識 속에 과거로부터 전수되어 왔고, 여러 世대를 거치 상징적 체계로 작품 속에서 再生되어 온 一面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神話 속의 人物과 이것저것 살펴볼 일이 가능할 것이다.

재래, 알의 전례 등 자리가 가능하다면 金素月 詩에 나타난 「님」을 通時的인 立場에서 혹은 神話의 人物을 통해 象征적으로 그 正體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通時的으로 나타나는 「님」의 究明과 神話의 人物의 究明을 토대로 그것과 일치하는 것임을 찾아 나가지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金素月 詩에 나타난 「님」과 根스런 離別の 情愴에 대한 象征적 해명을 풀고 究明함으로써 「님」이 神話의 人物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研究 結果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아진다.

하지만 筆者의 이런 假說的인 판단을 어떤 方法으로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프라이의 四季 神話<sup>13)</sup> 등 神話批評의인 方法論을 빌어 옮겨 하여 보았으나 시기에는 우선 큰가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는 그 이론이 서양을 기초로 한 것이니 만큼 우리 나라의 神話는 몇 개의 建國神話, 始祖神話를 빼면 서양의 종합적인 체계가 갖춰진 수많은 그리스도神話나 「일리아드」, 「오딧세이」 등과 같이 神話的 要素를 갖춘 서사시가 서양에 비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高麗 이후에는 神話 時代가 이미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상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나마 始祖神話를 제외시키면 記錄上으로 보거나 神話的인 체계로 보거나 제대로 갖춰진 것은 檀君神話와 東明王神話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두 神話만으로는 不足하여 제대로 究明되기 어렵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詩歌를 중심으로 펼쳐 나가는 方法과 巫俗 등에서 이 점을 보완하려고 해 보았으나 이 巫俗 등의 方面에서는 筆者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세계 전반의 神話에 대한 이해나 神話批評의 理論에도 그다지 밝은 편이 못되어서 부득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本 研究에서는 일단 神話 속의 英雄的 人物과 관련하여 詩歌에서 「님」과의 일치점을 찾는 데에 주력하기로 하고, 「님」과 作中 話者도 일종의 登場人物이므로 이 人物 究明에 있어 公同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보아지는 「님」의 不在, 그리고 서로간의 對立的인 性格과 類型을 중심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그 일치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여겨져서 이 세 가지 話素를 중심으로 일치점을 찾아 究明하는 선에서 머물까 한다. 하지만 究明에 있어서 本 研究의 主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부 해석에는 人類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은 과거로부터 전수된다는 「原型無意識」의 理論的인 도움을 약간 받기로 한다.<sup>14)</sup> 아울러 本 研究에서의 叙述 方法은 먼저 詩歌에서 通時的으로 나타나는 「님」을 究明해 보고, 이것을 토대로 神話 속의 英雄的 人物을 살펴 본 다음에 金素月 詩에 나타난 「님」의 문제로 좁혀 가는 연역적인

13) 李商燮: 앞의 책, p.194. (Frye: "The Archetypes of Literature", Kenyon Review, 1951, pp.92~110. 참조.)

14) 李商燮: 앞의 책, p.183.

方法을 취하기로 한다.

그런데 우리 문학에서 「님」이 등장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면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다. 古時調를 題材別로 분류한 (예만 보더라도 님(304회), 일(203회), 술(176회), 몸(135회), 사람(125회), 꿈(94회), 뜻(89회) 등의 순으로 되어 있어 「님」의 경우가 가장 많이 쓰였을 뿐만 아니라<sup>15)</sup>, 이들만 가지고도 전부 감당하기에는 힘에 겨운 일이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자세한 것은 각각의 해당 부분에서 상세히 살피기로 하고, 일단은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자 한다.

① 金素月の 詩 가운데서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한다. 그것은 詩集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님」이 不在라든가 하는 「님」의 상실은 전반적인 모습이고 또한 이를 잘 살린 작품 가운데 하나가 「진달래꽃」이라 보아지기 때문이며, 「진달래꽃」의 「님」을 究明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부분에만 金素月の 다른 작품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겠다.

② 金素月 詩와 공통적인 情緒를 갖는다고 보았던 古典作品 가운데 一部를 補助的인 대상으로 하되, 一部 연구자의 경우를 註를 통해 밝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筆者가 우리 詩歌에서 우선 「님」이 등장하는 詩歌를 살핀 다음에 作中 話者의 恨스러운 離別的인 狀況이 벌어지는 작품들을 40편 정도 추려 보았으나, 一部 연구자들의 例를 모아 놓은 것과 결과가 거의 같았고, 연구자들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究明은 몇 작품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거나 「님」의 存在와 不在와 關係해서 究明하기 보다는 기다림 등과 같은 맥락의 情緒로만 파악된 경우가 많으므로 「님」에 대한 人物 究明이 소홀하다고 보아져서 通時的인 「님」의 人物的 特徵을 명확하게 할 必要가 있어서이다.

③ 「님」은 詩歌에서도 하나의 登場人物이므로 建國神話 가운데서 本研究의 主題와 關係이 있다고 보아지는 英雄的 人物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 말에서 「님」의 쓰임새도 많은데, 이 쓰임새를 통해 古代의 原始信仰과 關係하여 神話로의 接近 可能性부터 유추해 보기로 한다.

15) 姜병욱 「한국고전지각론」, 新丘文化社, 1984, p.297.

## II. 「님」의 語義와 神話的 解釋의 可能性

우리 말에서 「님」의 쓰임새는 참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대체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명사로써 쓰일 경우와 접미사로 쓰일 경우이다. 명사로써 주로하는 사람이라는 意味와 더불어 접미사로써 남의 이름이나 어떠한 명사 뒤에 붙어서 종말의 뜻을 나타낸다. 이 경우, 「주어대자님」, 「조수대자님」에 사용하는 사람으로 表現되는 말 가운데는 「님」 말고도 「고대」, 「당신」 등도 같은 意味로 쓰일 경우가 많으며, 이것만 놓고 볼 때에도 「님」을 고려한 것 가운데 한국의 형제조이며, 이외의 친척을 個人差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님」이 詩歌에서는 명사로써 쓰이기 때문에 「님」의 명사적인 意味를 종말의 장미 보아야 하였으니, 「님」이란 말이 갖는 意味가 가항라는 對象의 意味 외에도 더불어 종장적인 意味를 內包하고 있을 때가 많아서 분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미사로 쓰이는 많은 경우 가운데서도 대의 인물과자로 되어서 意味를 갖게 된다고 한다. 이는 접미사로 쓰일 경우에 앞에 붙은 명사를 종말로 意味를 파악한다며 비교적 분명하게 그 意味를 갖게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뜻인데, 이 일을 근거로 다음과 같다.

첫째, 大自然物에 접미된다. 「햇님」, 「달님」, 「바람님」 등 大自然物을 神化하는 경우에 흔히 접미되어서 自然에 대한 숭배의 意味로 쓰인다. 이것을 古代의 종교가치 생각에 본다면, 大自然을 하나의 神的인 存在로 보고 이를 숭배하는 古代人의 信仰을 類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령하고 大自然을 지배하는 動物에 접미된다. 「호랑이님」, 「자자님」 등 神的인 정령함과 힘이나 용맹성으로 大自然을 지배한다고 여기는 動物에 대한 경외심의 意味를 갖고 있다. 호랑이 등은 說話에서 우리에게 「자랑님」, 혹은 자랑의 「使者」 등으로 칭송할 뿐만 아니라, 動物 이외의 다른 것과도 관련하여, 토메비준, 애니비준 등과 연결시켜 意味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宗教의 絕對者나 民間信仰에서의 絕對者에게 접미된다. 「부처님」, 「예수님」, 「조각님」, 「산님」 등 絕對者의 意味와 연결된다.

넷째, 統治者 혹은 최고 관리인에게 접미된다. 「임금님」, 「장군님」, 「최장님」, 「자신님」 등 君主나 將의 尊嚴인 등의 意味와 연결되어 있다.

다섯째, 上典이나 家族에 접미된다. 「주인님」, 「모친님」, 「삼아미님」, 「아미님」, 「아버님」, 「형님」 등 웃어른의 意味와 연결된다. 순행의 아미를 통하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또한 남편이나 婦人의 意味와도 결부하여 「자랑님」, 「당수님」 등처럼 쓰이기도 한다.

여섯째 남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을 접미된다. 「장생님」, 「교수님」, 「가자님」 등 직업에 접미되기도 하지만, 「장생님」을 직업의 경우로 생각하면, 장수라는 意味를 종말로써 붙일 때

호칭으로 많이 쓰인다.

일찍이, 남의 子女 호칭에 접미된다. 「아드님」, 「파님」 등이 그런 예인데, 이는 당사자를 높이는 것이라기보다 서로 對話하면서 父母에 대한 존칭으로 존중의 意味와 연결된다.

이것으로 우리 말에서 「님」의 접미사로 붙어 쓰일 때 앞에 붙은 단어를 중심으로 「님」의 語義를 파악해 본다면,

- ① 宇宙的인 大自然物에 대한 숭배
- ② 형형한 動物 숭배
- ③ 絶對者(統治者 또는 上位管理者)
- ④ 上典이나 웃어른 존중
- ⑤ 남친(남자)
- ⑥ 職業에 대한 호칭.
- ⑦ 他人의 子女를 호칭.

당 비교적 人間보다 上位에 있는 存在나 자신보다 윗자란, 혹은 윗자란이 아니라 한자라도 상태를 칭되하거나 숭배, 존중하는 데에 「님」이 접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大自然, 動物, 絶對者 등과 관련된 「님」의 語意味를 古代로 類推해 우리가 본다면, 도제 이전, 예대비중 등의 原始信仰과 相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淸潭에서 쓴 古木에 형질을 갖는 것과 동교 소원을 비는 것이기도 나무는 신성스러운 神的 存在일 뿐만 아니라, 檀君神話에서 「神壇樹」라는 記錄된 木이라도 이와 類推한 것이기 때문이다.<sup>16)</sup> 또한 能女도 動物인 줄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口碑文學 또는 說話 전반에 걸친 相關性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神話를 통해 「님」의 문제를 풀어 나갈 수도 있다는 可能性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할 만한 이에 대해 우리 문학의 「님」을 하나의 가능한 原型으로 보고 「님」의 神話에 대한 母胎를 檀君이나 東明王과 연결시켜 言及하고 있다.

우리 고유 문학 작품들은 형성 이전의, 또는 잃어버린 종합적 구조의 파편들이다. 이 파편들을 집합 배열하여 원형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프라이식의 신화 비평 방법에 의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 문학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님>과 버림 받은 <나>(대개 여성 또는 여성적 입장) 사이의 특수한 관계는 단일 신화의 어느 부분의 파편인가? 2세기에 유리자고(崔累子高)의 아내 여왕(麗王)이 지었다는 <공후인>(空後引)에 이미 가지 말라는 잔류를 뿌려치고 가는 무성함, 어찌 보면 어리석은 님이 등장한다. 신중의 향가인 <권가>(戀歌)에도 그 흔적이 보이며 고려시대는 <가자리>로 대표되는 여러 <님>의 노래가 있다…… 이는 후일 <자미인곡>, <축미인곡>, 가다 인군지정(戀君之情)을 읊은 수많은 시조 작품에 의해서 계승된다. 궁선 관계가 어찌런 님과 관계와 동일시될 정도였다면, 확실히 변경거중의 님과 여인의 원망스런 관계는 한국인의 심성에 크게 잠재력을 행사하는 기본적 신

16. 「神壇樹」에서 神=樹, 즉 '신령스러운 나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나무에 신령이 깃들여 있다고 하는 古代人의 原始信仰과 相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의 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소월은 이 신화의 태두리 밖에서는 작품을 창조할 수 없다고 환용을 역시 고한다.

(中略)

신화 비평은 크라이의 방법만 가지고 있을 것은 결코 아니니까 <님의신화>를 추적하는 방법을 다른 이론가들에게서 빌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가에 흔히 등장하는 인물인 <님>을 하나의 신화적 인물로, 동일한 인물의 이리 <연꽃>로 분다는 것은 천국 신화 비평의 심원의 정석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님>이 한국의 선유석(단군이나 동명왕) 영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sup>17)</sup>

우리 문학에 등장한 「님」이 남편, 꿈 등 의미와 관련하여 戀君之情을 읊은 작품이 많다면, 이는 앞에서 筆者가 구분한 우리 말에서 「님」이 접미되는 경우에 있어서 앞에 붙는 명사의 의미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님」의 登場은 檀君이나 東明君 등의 神話와 관련하여 究明해 볼 수 있는 根據와 必要性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神話를 살펴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문학에 通時的으로 나타나는 「님」의 原型的 모습부터 짚고 난 다음에 이를 토대로 神話 속의 英雄的 人物을 究明하는 것이 正道인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一部の 연구자들이 지적해 온 작품을 모아 정리하여 보고, 이것을 筆者가 서분류하여 通時的인 「님」의 實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7. 李商燮: 앞의 책, pp.199~207, 참조.

### Ⅲ. 詩歌에 있어서의 「님」의 存在 樣相

우리 문학에서 「님」과 관련해서 情緒를 說明한 先行 研究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아리랑」, 「도라지타령」 등의 民謠的 情緒를 토대로 說明하는 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詩歌를 통하여 說明하는 方法이다. 그런데 前者의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고 後者의 경우 一部 연구자들이 우리 문학의 「님」을 說明하였거나 金素月과 관련해서 說明한 경우를 대략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究明되었거나 一部의 지적이 있어 온 작품들이다.<sup>18)</sup>

- ① 麗玉 「公無渡河歌」
- ② 牽牛翁 「獻花歌」
- ③ 信忠 「怨歌」
- ④ 鄭叙 「鄭瓜亭曲」
- ⑤ 未詳 「動動」
- ⑥ 未詳 「가시리」
- ⑦ 未詳 「鄭石歌」
- ⑧ 未詳 「靑山別曲」
- ⑨ 丁克仁 「賞春曲」
- ⑩ 戀君之情的 時調 多數
- ⑪ 黃眞伊 時調
- ⑫ 鄭澈 「思美人曲」, 「續美人曲」
- ⑬ 韓龍雲 「님의 沈默」
- ⑭ 金素月 「진달래꽃」, 「金잔디」
- ⑮ 朴寅煥 「미래의 창부」 등

筆者는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詩歌에 통시적으로 나타난 「님」을 살펴 보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작품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그것은 우리 詩歌에서 「님」이 등장하는 시가를 다 다루기에는 質量的으로 너무 광범위한 문제이므로 필자가 추려 본 작품과 관련하여 年代順으로 작자를 배열해 본 결과이다.

18) ① 許17 참조. ② 林鼎國: 인의 개, pp.83~88. 참조. ③ 趙南翼: 인의 개, pp.115~117. 참조.

- 1) 古代
  - (1) 麗王 「公無渡河歌」
  - (2) 瑠璃王 「黃鳥歌」
  - (3) 未詳 「井邑詞」
- 2) 高麗
  - (1) 鄭叙 「鄭瓜亭曲」
  - (2) 未詳 「가시리」
- 3) 朝鮮
  - (1) 王邦衍 「千萬里 머나먼 강에」
  - (2) 黃眞伊
    - ① 「冬至스물 지나긴 밤을」
    - ② 「내 언제 無信호여」
    - ③ 어저 내일이야」
  - (3) 鄭澈
    - ① 「思美人曲」
    - ③ 「續美人曲」
  - (4) 鳳林大君 「靑石嶺 지나가나」
- 4) 現代
  - (1) 金億
    - ① 「설은 노래」
    - ② 「비」
  - (2) 韓龍雲
    - ① 「님의 沈默」
    - ② 「알 수 없어요」
  - (2) 金素月 「金잔디」
  - (4) 毛允淑 「기다림」
  - (5) 盧天命 「임 오시던 날」



이들 작품의 선택과, 原文이나 名稱 등의 문제는 아래에 따르기로 한다.

- ① 時調나 現代詩에 비해 現傳하는 古代나 高麗의<sup>19)</sup> 작품은 量的으로 적기 때문에 時調나 現代詩의 경우를 줄인다.

19) 趙潤濟「國文學史概說」, 乙酉文化社, 1984. 年, 時代를 고대, 중세, 近古세, 近代學으로 구분하고 있고, 金起東「國文學概論」, 進明文化社, 1980. 年을 향가, 고려가요 등 향리병풍, 五言詩「산국문학총서」1·2·3, 각각집업자, 1983~1984. 年을 원시, 고대, 중세, 근대문학 등으로 구분하여 敘述하고 있는 자료 이외의 다른 갖기 자료므로 여기서는 淸의장 政宗史로 같이 古代, 高麗, 朝鮮, 現代로 구분한다.

- ② 작가당 2작품 이내로 하나, 平時調의 경우 短形이기 때문에 3작품까지로 하고 작자가 불투명한 것은 未詳으로 한다.<sup>20)</sup> 또한 해방 이후는 略하고 「金잔디」는 本研究가 金素月の 「진달래꽃」의 「님」 研究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一面을 살필 수 있으리라 여겨 같은 對象으로 놓는다.
- ③ 原文은 가급적 現代語로 번역되거나 一般화된 것을 사용한다.
- ④ 國文學史에서 작품 분류를 鄉歌, 時調 등의 장르로 구분하거나 時代로 나누어서 叙述하는 것이 보통이어서<sup>21)</sup> 이들 작품을 전체적으로 통칭할 적당한 명칭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님」을 중심으로 한 詩歌이기 때문에 「님의 詩歌」라 하기로 한다.
- ⑤ 「님」의 通時的 存在 樣相은 이 작품들을 가지고 살펴가로 하고, 이 「님의 詩歌」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들의 一般的인 見解를 따르기로 한다.

그러면 「님」의 通時的 存在 樣相을 「님」과 作中 話者と 관련시켜 「님」의 不在, 서로의 性格과 類型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分析하기로 한다.

### 1. 「님」의 不在로 본 存在 樣相

「님」의 登場하는 우리 詩歌에서 「님」의 不在는 하나의 보편적인 定說로 되어 있다. 「님」의 상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각각한 경우가 많은데, 「님」과 作中 話者 사이에서 「님」의 상상으로 인한 離別의 狀況을 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公無渡河歌」에서<sup>22)</sup>, 高麗歌謠의 상당 부분에 실린 女流 作品에서<sup>23)</sup>, 「님의 沈黙」에서<sup>24)</sup> 등 古典에서 現代詩에 이르기까지 「님」의 不在와 관련하여 說明된 例는 많은 곳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님의 詩歌」의 아홉 작품을 놓고 보더라도 「님」의 不在는 公明 하나의 공통점을 알 수 있다. 이미 「님」의 不在가 이루어진 작품을 일컫는 작품으로 84.2%, 「님」의 不在가 이루어지는 狀況을 묘사한 작품이 한 작품으로 5.3%, 기타 부분이 다소 관련된 작품이 두 작품으로 10.5%이다. 여기서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면 「님」의 不在에 관련된 작품만으로도 89.5%에 이른다. 「님」의 不在는 「님의 詩歌」에서 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작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나가기로 하자. (작자명은 省略)

20) 정병욱, 『알의 책』, pp.58~62. 김진우 「公無渡河歌의 작자가 「白首狂夫妻」라고 주장하고 있고, 一名 「荅候引」이라고도 하나 여기서는 麗玉과 「公無渡河歌」로 해 둔다.

21) 註 19참조.

22) 정병욱: 앞의 책, p.63.

23) 朴堯顯: 「高麗歌謠에 나타난 女流特質과 그 原因攷」, 『崇田語文學』, 제3집, 崇田大 國語國文學會, 1974, p.32.

24) 金顯承: 앞의 책, p.328.

남을 고여 물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으니<sup>25)</sup>  
〔公無渡河歌〕에서

석재 내려진 고요  
〔井邑詞〕에서

月沈三更에 후 뜰이 진리 업디  
〔내 언해 無信하여〕에서

…탄상(丹上) 백옥경(白玉京)을 잊디후야 이별(離別)호고  
〔積美大曲〕에서

…고을 남 이히잡고  
〔千萬里 이나면 길에〕에서

산포자풍 이 내 낭포님  
어느 곳을 헤메도  
〔만〕에서

…아야 사랑하는 나의 남을 잊습니다  
〔님의 沈黙〕에서  
가신 남 부딪가에 金간디  
〔金간디〕에서 (가정: 권자)

「님의 不在와 관련하여 나타난 것들을 보면,

- ① 죽다.
- ② 올 뜻이 없다.
- ③ 離別하다.
- ④ 여의다.
- ⑤ 헤메다.
- ⑥ 가다.

등의 動詞의 表現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表現은 방황과 죽음, 고통을 意味하는 動詞

25) 公竟渡河 / 卒河而死

와 연결되어 있어 「님」의 不在가 作中 話者에 미치는 情緒는 기쁨보다는 슬프고 恨스런 것임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님」의 不在의 基調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님」의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離別이다. 「公無渡河歌」, 「金잔디」 등의 「님」의 不在는 「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이다.

둘째, 「님」의 미움, 外出, 現實的 狀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不在이다. 「井邑詞」의 저자(市場)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근심이나<sup>26)</sup>, 月沈三更에 울 뜻이 없는 「님」 등은 영원한 離別이라기 보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一時的 不在의 「님」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열 일곱 작품에서 「님」의 不在는 작품의 내용을 구성하는 하나의 中心話素이며, 「님」의 不在에 따른 作中 話者의 괴로운 心境을 읊은 것이라는 結果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런 作中 話者의 恨스런 모습은 「님」의 不在가 이루어진 이후의 感情의 方面들이다. 따라서 「님」의 不在 이전에 「님」이 存在한 상태에서 作中 話者의 모습을 먼저 일차적으로 살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作中 話者가 「님」에 대한 情緒의 恨의 根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님」의 不在 이전의 作中 話者의 情緒는 어떤 것일까.

이 몸 삼키실 세 님을 조차 삼키지나 혼성 일분이며 하늘 모를 일어난가. 내 흥나 점어 있고  
님 흥나 날 괴지니 이 몸은 이스랑 전줄타 보어 업다.

「思美人曲」에서

나는 향기로운 님의 갑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멎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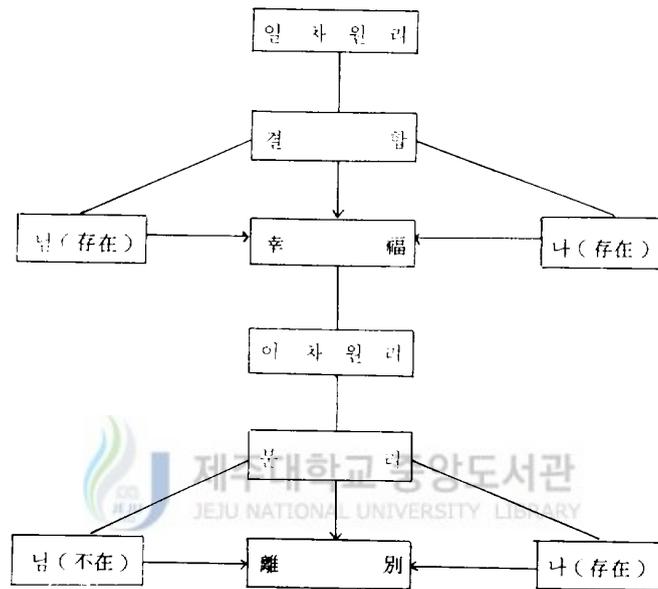
「님의 沈黙」에서

「님」이 不在되기 이전에 「님」이 存在한 상태에서의 作中 話者는 幸福, 그 자체를 누리고 있다. 「님」이 날 사랑하시니 「님」의 사랑은 견줄 데 없을 만큼 作中 話者에게 幸福을 주고 있고, 「님」의 말 한 마디는 作中 話者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할 만큼 作中 話者를 幸福하게 매료시키고 있는 것이다. 「님」이 存在한 상태에서의 「님」에 대한 作中 話者의 사랑은 作中 話者에게 기쁨과 幸福이다. 이런 「님」과의 사랑에서 「님」이 不在하고 나면, 作中 話者에게 주는 離別의 슬픔은 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음이 한없이 쓰라리고 고통스런 아픔도 초월적인 克己의 고뇌 속에서 忍耐하며 다시 「님」과 재회하여 不在 이전의 幸福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作中 話者의 굳은 열망이 작품 속에 表出된다. 이것은 모든 것을 등지한 채념이라기보다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간직한 번뇌스러운 채념이며 情恨의 美學이요, 「기다림」의 情緒인 것이다. 「님을 보내지만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런 表現과 같은 것들은 이것을 잘 말해 준다.

26) 金圭泰: 「情恨의 美學」, 正音社, 1972, p.25.

그러나 이 作中 話者는 대부분 「나」로 表現된다. 일 아홉 작품 가운데 일 여섯 작품이 「나」로 表現되어 있다. 같은 離別의 고통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당한 경우와 자신이 처했을 때에는 그 느낌이 다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1인칭의 「나」라는 表現은 마치 자신의 체험한 것처럼 「님」의 不在에 따르는 離別的 情恨을 더욱 쓰라린 것으로 深化함에 있어 直線的 視點이라는 데에 歸結된다.

위에서 究明된 것들을 가지고 그림으로 圖式化해 보면 「님」이 登場하는 詩歌는 하나의 構造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님」의 不在에 따르는 것을 <圖1>로 說明할 수 있다.



<圖 1>

<圖1>에서 보듯이 우선 일차적으로 「님」과 作中 話者는 서로 만나서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눈이 머는」 것과 같은 幸福을 누리다가 이차적으로 「님」의 不在에 따라 「님」과 作中 話者는 서로 분리되어 離別的 狀況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作中 話者는 「님」과 재회하여 일차적 원리로 돌아가길 갈망하는 「기다림」의 情緒로 離別的 情恨을 작품 속에 表出하게 된다. 「님」이 登場한 우리 문학에서 「春香傳」과 같은 경우는 李夢龍과 成春香의 만남→李夢龍의 不在→李夢龍과 成春香의 再會 등 일차 원리→이차 원리→일차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詩歌에서는 이 이차적인 모습이 일차적인 모습보다 훨씬 강하게 드러나 작품의 줄거리를 형성하면서 情恨의 美學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즉 「님」의 不在가 離別的 狀況을 만드는 基礎가 되는 것이다.

## 2. 性格으로 본 存在 樣相

얼 아홉 작품에서 「님」과 作中 話者의 性格은 對立的이다. 「님」이 해와 같이 찬란하고 화려하다면 作中 話者는 달과 같이 은은하고 소극적인 색채를 띠고 나타난다. 「님」이 作中 話者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絶對的인 만큼 「님」의 不在에 따라 「님」에게 버림을 받는 作中 話者는 「눈물」, 「한숨」 등으로 離別의 悲哀에 젖어 고통스러워 하고 「님」을 그리워하는 存在 樣相을 보인다.

외로운 이 내 몸은  
우주와 더불어 돌아갈까?  
[黃鳥歌]에서

내 님을 그리움와 후니다니  
[鄭瓜亭曲]에서

한리코 가지리잇고 나는  
(中路)  
심향달 아니 올세라  
[가지리]에서

이 지다 향더면 가라마는 제 구복어  
보내고 그리운 情은 나도 몰라 향노라  
[어석내 일이야]에서

大同江水 한 가을에  
한 배우에  
이 내몸의 운물리가  
내리우나  
[선운 노래]에서

우를 좌절을 깨치고 단송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강을 건너서 참어 떨치고 있습니다.  
黃金의 옷갈이 굶고 몇나년 옛 盟誓는 차미갈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微風에 날아 갔습니다.  
[님의 沈默]에서

오시는 길엔 薔薇가 피어 지지 않으오리다

오시는 길엔 달빛도 그늘지치 않으오리

「기다림」에서

(가정: 필자)

「님」과의 離別의 狀況에서 作中 話者가 갖는 感情은 「외로움」, 「그리움」 등의 感情이다.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作中 話者의 이러한 感情을 중심으로 「님」과 作中 話者의 性格을 類推하여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님」이 찬란하고 화려하다면, 作中 話者는 소극적이고 나약한 女性的 性格이다. 「님」에 대한 表現을 보면,

「님」의 盟誓=黃金의 꽃

「님」 오시는 길=薔薇와 달빛

등 作中 話者는 「님」을 絶對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님」과의 盟誓는 영원히 변하는 일이 없이 굳고 빛날 것으로 여겼으며, 「님」이 오시는 길만 해도 薔薇가 피어서 영원히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빛도 그늘지치 않아서 밤이라 할지라도 환할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리고 「눈물」, 「한숨」 등의 연약한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도 女性이다.

우리 문학이 離別의 情恨과 관련하여 女性 中心의 문학이었다는 것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究明되어 왔는데, 「公無渡河歌」, 「黃鳥歌」, 「井邑詞」, 「가시리」, 「思美人曲」, 「續美人曲」을 비롯하여<sup>28)</sup>, 「님의 沈默」<sup>29)</sup> 등 많은 곳에서 女性的 作中 話者인 점을 지적해 왔다. 아울러 「콩쥐팥쥐전」, 「장화홍련전」, 「숙영낭자전」 등 수많은 古典小說에서도 主人公이 女性으로 登場한다는 점을 중시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열 아홉 작품의 「님의 詩歌」를 가지고 이것을 분류해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작자는 女性보다 男性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作中 話者는 女性, 女性的인 색채를 띠고 있는 작품이 열 여덟 작품(일 작품은 구분 곤란)으로 대부분이었다.

둘째, 「님」의 不在와 관련하여 「님」은 떠나며 이에 作中 話者는 버림을 받는 性格이다. 「님」이 作中 話者를 버리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立場이라면, 作中 話者는 버림을 받는 피동적이고 타율적인 立場이다. 「님」은 作中 話者에 비해 上位에 있다. 嬪姬를 찾아가서 사정 하였으나 끝내 버림을 당하고 혼자서 꾀꼬리 한 쌍을 보며 悲痛에 잠긴 琉璃王이나, 나를 버리고 가는 「가시리」의 「님」 등 作中 話者는 性格적으로 우월한, 떠나는 「님」에 의해 결국 버림을 받는다.

셋째, 作中 話者는 「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반면 「님」은 作中 話者를 그리워한다기보다 不在後에 무소식의 性格을 갖고 있다. 「井邑詞」에서 집을 나간 남편이 소식이 없기에 아

28) 정병욱: 앞의 책, pp. 299~300. 참조.

29) 李慶敎: 「《님의 沈默》의 이미지 分析」, 「東岳語文論集」 第二十輯, 東岳語文學會, 1985, p. 297.

내는 남편이 「준 디」에 빠져 헤매고 있거나 않은지 걱정하면서 돌아와 주길 기다리는 것 등 「님」은 무소식이다. 하지만 「님」의 이러한 무소식에 대해 作中 話者는 「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지내는 등의 그리움과 기다림의 情緒로 연결되어 있다.

네째, 떠난 「님」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 데에 비해 버림 받은 作中 話者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戀君之情을 읊은 수많은 작품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君主에게 버림을 받은 臣下는 流配당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思美人曲」 등에서 보듯이 流配당한 臣下의 고통에 비하면 君主는 별다른 고통을 받지 않는다. 새 臣下를 登用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버림 받은 作中 話者는 「눈물」, 「한숨」 등의 극심한 고통 속에 버린 것을 「님」이 거두어서 再會하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 문학에서 「님」과 作中 話者의 性格의 存在 樣相은 심한 對立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對立으로 말미암아 「님」과 作中 話者는 대등한 관계라기보다 主從關係이며, 上下의 關係로 歸結된다. 이러한 對立的 性格은 결국 서로 合致되지 못하고 分離되었을 때 「님」보다 作中 話者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충격을 수반하게 된다. 離別의 情恨이 「님」보다 作中 話者 위주로 展開되는 것도 이것에 基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類型으로 본 存在 樣相

「님」과 作中 話者의 類型은 구체적으로 「님」과 作中 話者가 意味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類型이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 보기 위한 것인데, 이들과 筆者가 II. 「님」의 語義와 神話的 해석의 可能性에서 분류한 현재 우리 말에서 「님」이 접미되는 경우와의 相關性도 比較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님」과 같이 우리 문학 작품에서 많은 意味와 象徴을 內包한 낱말을 精確하게 分析하는 일은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一般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을 根據로 하면서 筆者의 생각을 一部 附加하기로 한다. 몇 아홉 작품을 이런 기준 위에서 분류해 보면 <表1>처럼 나타난다. 기타 가운데서 「靑石

類 型	님	作中 話者	작 품 수	%
夫 婦	남 편	아 내	4	21.1
戀 人	男 性	女 性	6	31.6
君 臣	君 主	臣 下	4	21.1
絶對者(祖國, 自然)	絶 對 者	非 絶 對 者	2	10.5
기 타	-	-	3	15.8

<表 1>

嶺 지나가냐」는 仁祖 때 병자호란으로 淸에게 敗하고 人質로 끌려가면서 읊은 鳳林大君의

時調로 父子(白頭翁)의 관계를 그리워하며 작사하였다. 이 작품은 父子의 類型으로 「님」은 白頭翁으로, 作中 話者는 鳳林大君이다. 그리고 비유 君臣의 關係라 하나라도 작품에서의 表現은 存在 互相을 夫婦間의 愛憎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원앙을(鴈卷錦) 비유 五色의 옷(五色綵) 주머니의 남자와 전하여지 남의 옷 지어 너나  
수품(守品)은 너나의 제도(制度)도 모른다

「思美人曲」에서

대 가는 가지 불 듯도 쓰다하고

「續美人曲」에서 (가사: 同前)

원앙새는 꽃을, 꽃의 씨, 완충 등을 먹으며, 새 가운데서 암수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늘 같이 있어 자기가 종으로써 애틋한 夫婦間의 깊은 애정에 비유되어 왔다. 따라서 이불, 바늘 등의 친구에는 조차 원앙새를 수놓는다. 이 작품 「思美人曲」은 원앙새의 習性에 君臣間의 애정을 비유한 것으로 「黃鳥歌」의 왜곡의 암수 한 쌍의 의미와 비슷하다. 원앙새 부부의 비탄을 잘라 五色의 것을 풀어 내어 「남」의 옷을 만들어주는 것은 원앙새의 암수, 즉 夫婦와 같이 「님」 君臣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作中 話者 臣下의 마음을 원앙새를 빌어 夫婦間의 애정으로 비유하고 있다. 또한 「續美人曲」은 남편을 사모하는 아내가사의 心境으로 君主에게 버림 받은 臣下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sup>30)</sup> 이것은 儒敎社會에서 君臣의 關係는 夫婦間의 음정과 동일시할 정도로 絶對的인 것이었음을 意味한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 詩歌에서 「님」과 作中 話者의 類型은,

- ① 夫婦
- ② 戀人
- ③ 君臣
- ④ 絶對者와 非絶對者(歎慕者)
- ⑤ 解放(理想)과 植民地의 祖國(現實)
- ⑥ 父子

등으로 展開되는 가운데 夫婦, 戀人, 君臣 등의 關係가 基礎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님」은 ① 남편, ② 戀人, ③ 君主, ④ 絶對者, ⑤ 理想, ⑥ 父 등 II에서 筆者가 우리 말에서 「님」이 접미되는 경우를 가지고 분류한 7가지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詩歌에서 나타나는 「님」은 우리 말에서 「님」의 쓰임새만큼 다양하면서도 서로 비슷한 意味와 연결되는 것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유사한 類型이 반복되어 작품에 登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0) 金基泰: 양의 개, p. 94.

#### 4. 存在 樣相에 나타난 「님」의 共通點

「님」과 作中 話者와 관련하여 「님」의 不在, 性格, 類型의 세 가지 方面에 있어서 說明된 것들을 토대로 「님」의 共通點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님」은 일차적으로 存在했다가 다음에 不在한다. 특히 이차적인 不在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
- ② 「님」은 찬란하고 英雄的이며 남성적이다. 그리고 作中 話者를 버리는 上位的인 性格이며, 不在後의 무소식과 연결되어 있고, 離別에 대한 고통이 적을 뿐만 아니라, 主從의 關係에서 主이다.
- ③ 「님」의 類型은 남편, 戀人, 君主, 絶對者, 理想(祖國의 解放 등), 父親 등과 연결되어 반복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들 「님」과 作中 話者는 夫婦의 基礎 위에 파생되어서 남편, 戀人, 君主 등이 자주 登場한다.

이제 「님」의 이러한 共通點과 관련하여 神話 속의 人物을 살펴 보기로 한다.



#### IV. 建國神話 속의 英雄的 人物과 「님」의 相關性

神話を 探索하기에 앞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異本の 문제이다. 큰 줄거리는 거의 같다 하더라도 異本の 기록상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어느 것을 原神話에 가까운 것으로 놓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 檀君神話의 異本만 해도 「三國遺事」, 「帝王韻記」, 「新增東國輿地勝覽」, 「應制詩註」, 「世宗實錄」, 「高麗史」, 「朝鮮史略」, 「東國通鑑」, 「世家譜」, 「檀奇古史」 등 10여 개에 달하는 異本の 기록이 있다.<sup>31)</sup> 이는 口傳되어 오던 內容을 다른 口碑文學과 마찬가지로 후에 와서 文字로 기록하다 보니, 文獻間에 서로 相異함을 조금씩 드러내게 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 檀君神話의 기록에 있어서 「三國遺事」의 기록이 原神話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은 一部 연구자에 의해 이미 입증되어진 바가 있다.<sup>32)</sup> 아울러 여러 文獻 가운데서도 內容上 「三國遺事」와 「帝王韻記」의 기록으로 좁혀 說明하고 있는데, 다른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록의 차이점은 우선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sup>33)</sup>

- ㉠ 文字상의 차이
- ㉡ 享國年代상의 차이
- ㉢ 檀君 出生話素의 차이

이들 기록상에 있어서 文字상의 차이가 있다 해도 意味上에 차이란 것이 없으며,<sup>34)</sup> 神話 속의 享國年代는 정확히 주장이 어렵다. 제외시킬다면,<sup>35)</sup> 문제가 되는 것은 出生상의 차이



31) ① 崔南善: 「檀君古記箋釋」, 『思想界』, 1954, 2월 호(金宅圭·成炳禧編: 「韓國民俗學研究論文集」, II, 一潮閣, 1982. 所收), pp. 179~180. 참조. ② 檀君精神宣揚會編: 「檀君 역사의 研究 문헌」, 『國祖檀君』, n.p. 1982, p. 293.

32) ① 金鈺龍: 「韓國古說話論」, 예문사, 1984, p. 14. ② 玄容駿: 「檀君神話의 文學的 考察」, 『홍익崔正如博士頭壽記念論叢』, 啓明大出版部, 1983, p. 20.

33) 玄容駿: 앞의 책, p. 19.

34) 文字상의 차이는 「壇」과 「檀」, 「伯」과 「白」, 「授」와 「受」 등이다. 「檀」은 「檀君」에 의거한 다른 기록은 「檀」이다. 「壇」이 「檀」과 「檀」 이외에 「檀檀」, 「檀檀檀」, 「檀檀檀檀」의 「檀」과 일치하지 못 할 있으나(金鈺龍: 앞의 책, p. 12),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 「檀檀檀檀檀檀檀檀」의 해석상 큰 차이가 없다. ② 太伯山頂: 「三國遺事」, 太伯山頂: 「帝王韻記」, 太伯山頂: 「應制詩註」, 「世宗實錄」 등으로 되어 있으나 山頂의 山頂이므로 山頂의 山頂이 山頂에 큰 차이가 없다. ③ 授天符印: 「三國遺事」, 受天符印: 「帝王韻記」, 「應制詩註」, 「世宗實錄」, 持天符印: 「新增東國輿地勝覽」 등 「授」, 「受」, 「持」로 나타났 「檀檀檀檀檀檀檀檀」 意味상의 큰 차이가 없다.

35) ① 神國一千五百年: 「三國遺事」, ② 神國一千五百年: 「帝王韻記」, ③ 檀君 原史와 檀君 承傳: 「檀君 原史」의 檀君 原史와 檀君 原史의 檀君 原史, ④ 檀國一千四百七十年: 「世宗實錄」, ⑤ 檀國一千四百七十年: 「應制詩註」 등 檀君의 出生에 대한 記載의 차이이다.

일 것이다.<sup>36)</sup>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선조자들의 原神話에 가까운 것을 「三國遺事」의 기록으로 보고 있다는 점으로 바꾸어 「三國遺事」의 建國神話에 나오는 人物을 중심으로 究明하기로 한다.

## 1. 英雄的 人物의 存在 樣相

筆者는 「三國遺事」에서 始祖神話와 관련하여 建國神話를 살피면서 檀君神話에서 「桓雄」과 「熊女」, 東明王神話에서 「解慕漱」와 「柳花」로 좁혀 보았다. 이렇게 좁히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님의 詩歌」에서 「님」과 作中 話者의 두 人物을 통해 「님」의 共通點을 찾아냈듯이 建國神話에서도 二元的 人物을 통해 한 人物들의 共通點을 추적해서 「님」과 比較해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 탓이다.

둘째, 檀君神話나 東明王神話는 둘 다 桓因-桓雄-檀君, 天帝-解慕漱-朱蒙에 이르는 三代記인데<sup>37)</sup>, 檀君神話에서 檀君이 나중에 神이 되었다(爲山神)는 점 등으로 미루어 熊女の 母系 血統보다는 天上界의 神的인 父系 血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英雄的인 檀君이나 東明王은 桓雄과 解慕漱의 特徵을 통래서도 分析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셋째, 「赫居世王」과 「龍女」 등 다른 人物들도 추려 보았으나, 이들을 전부 다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分量이어서 두 神話의 人物로 좁혔다.

그러면 筆者가 추려낸 각각의 두 人物의 關係를 「님의 詩歌」에서처럼 不在, 性格, 類型을 중심으로 살펴 보자. 각각의 神話에서 두 人物 外에 전체적인 人物에 대한 究明이 先行되어야 하겠지만, 이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각각의 두 人物에 대한 기록만을 중심으로 하기로 한다.

### 1.1. 「桓雄」과 「熊女」

「三國遺事」 卷一 古朝鮮 王儉朝鮮條에 실린 桓雄과 熊女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桓雄

- ① 桓雄의 童子이다.
- ② 天下에 莫不 畏懼 人世를 守하코자 한다.

36) 「三國遺事」의 기록은 桓雄과 熊女가 결혼하여 檀君을 낳았다고 되어 있다. 桓雄(雄)假化而 感之孕生子. 「高王韻記」에 孫女에게 幻術 變化 사람이 되어 檀樹神과 결혼하여 檀君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 (金孫女假漢成人身與檀樹神感而孕男)

37) 金德淵, 「三國文學概說」, 一潮閣, 1984, p. 36.

③ 桓雄은 아들 桓雄의 뜻을 알고 三危太伯의 내려다 보리, 弘益人間의 한 하므로 天符印 3을 주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④ 무리 3천을 이끌고 太伯山頂(神壇樹) 밑에 내려와 한 솥을 神市라 이으니 이 분이 桓雄天王이다.

⑤ 風伯·雨師·雲師을 기쁘리니 穀·命·冊, 善惡을 일간의 360餘事의 무이 세상을 다스리고 教化하였다.

## (2) 熊女

① 이 때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산을 숲에 살고 있었다.

② 곰과 호랑이는 神熊에게 지은다 하여 새 낳고 말았다.

③ 지어 桓雄을 죽 한 줄과 사, 20개와 수까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

④ 곰과 호랑이는 이를 받아서 각각 낳은 21알을 낳하여 女子가 되었으나 호랑이는 이것을 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⑤ 女子가 된 熊女가 결혼하여 男子가 없으므로 산을 壇樹 아래서 이의 배기를 呪願하였다.

⑥ 桓雄이 이에 잠깐 인간으로 변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이가 壇君이다.<sup>38)</sup>

이 정리된 것들을 토대로 桓雄의 不在, 桓雄과 熊女の 性格과 類型을 究明하여 보기로 한다.

### 1.1.1. 「桓雄」의 不在

桓雄과 熊女가 결혼한 것에 대한 기록을 보면 「雄乃假化而婚之」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假」의 意味는 많은 뜻을 內包하고 있다. 여자가 된 熊女와 결혼하여 주는 남자가 없으므로 항상 神壇樹 아래에서 빌기에 桓雄은 熊女를 동정하여 假化人이 되었다는 意味이다. 「假化」는 잠깐 人間으로 변장하였다는 意味에 지나지 않을 뿐<sup>39)</sup>, 본질적으로는 熊女와 동일선상의 人物이 아니다. 여전히 神的인 存在이다. 桓雄과 熊女는 처음 結合하여 檀君을 낳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하고 계속적인 結合은 아니다. 「假」라는 文字가 이를 說明하고 있다. 桓雄과 熊女는 神과 人間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同化되지 않고 있으며, 神(桓雄)은 地上의 人間(熊女)이 壇樹 아래서 항상 아이 갖기를 呪願하는 것을 보고 동정하여 일시적인 熊女와의 결혼으로 人間の 소원을 들어 주었다는 意味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假」의

38)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二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 太伯今妙香山)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義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願化爲人 時神遣靈交一 柱蒜二十枚日 爾蠶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居三七日 雄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子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檀君王儉(下略).

39) 李丙壽 譯, 「三國遺事」, 新華社, 1983, p. 77.

意味로 볼 때 桓雄의 순간적인 人間으로의 변신에서 본래의 모습인 天上界에서 下降한 神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나면, 熊女만 남는다.

우리 나라의 口傳되어 온 民譚이나 傳說 등을 통해서도 桓雄의 이러한 모습은 쉽게 說明할 수 있다. 「백 년 묵은 여우」, 「鬼神」, 「도깨비」 등의 話素는 혼한 것인데, 이들은 자주 變身을 하고 자신의 일(桓雄의 熊女가 아이 갖기를 呪願하는 것을 들어주는 일 따위)이 끝나면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것들은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백 년 묵은 여우」가 어여쁜 여자로 變身하여 남자를 홀리고, 이 일이 끝나면 본래의 자신의 모습인 「백 년 묵은 불여우」로 돌아가 남자를 해친다는 이야기, 恨을 품고 죽은 女人이 밤마다 鬼神으로 變身하여 머리를 풀어 헤치고 찾아오다가 자신의 일인 恨을 풀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人間으로 假化한 도깨비가 밤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다가 새벽닭이 울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술하게 들어오던 것들이다. 또한 古典小說 등에서도 이런 모습은 나타나는데, 「옹고집전」만 해도 학대사가 옹고집을 괴롭히 여겨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에 道術과 佛力을 사용해서 人間으로 假化하게 해 놓고, 옹고집을 참회하게 만들자(허수아비 본연의 자신의 일), 다시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되었다는 것 등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여우 → 女人 → 여우

死者 → 鬼身(女人) → 死者

도깨비 → 人間 → 도깨비

허수아비 → 人間 → 허수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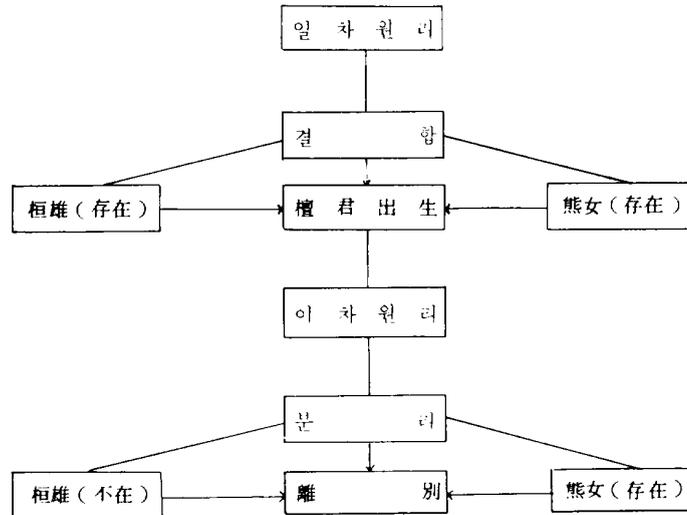
의 모습으로 歸結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우, 死者(鬼神), 도깨비, 허수아비들은 人間이 아니다. 自由롭게 變身을 하는 등의 神通력을 가진 神的 存在이다. 眞 → 假 → 眞의 原理에 의해 자신의 일에 대한 소원 성취가 끝나면 假 → 眞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桓雄도,

桓雄(神) → 桓雄(假化人間) → 桓雄(神)

↑  
熊女の 소원 들어줌(결혼)

으로 결국 假化的 人間에서 본래의 모습인 天上界의 神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결혼은 하나의 자신의 일인 셈이다.

桓雄이 假化한 人間에서 본래의 神으로 돌아가면, 熊女에게 桓雄은 不在的 狀況으로 자리하게 된다. 결국 이 不在的 狀況에서 비롯되는 것은 必然的인 離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關係를 圖式化해 보면 <圖2>로 「님의 詩歌」와 큰 차이가 없음 알 수 있다. 우선 일



〈圖 2〉

차적으로 桓雄과 熊女는 結合하여 檀君을 出生하지만, 이차적으로 假化한 桓雄이 神으로의 復歸로 말미암아 不在의 狀況에서 비롯되는 離別의 構造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일차적인 모습에서 檀君 出生은 熊女가 呪願하던 소원을 성취하였다는 점에서 「님의 詩歌」의 일차 원리인 作中 話者의 幸福과 연결되는 것이며, 기록에서는 이차적인 모습에 대한言及이 省略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1.1.2. 「桓雄」과 「熊女」의 性格

桓雄과 熊女에 대한 性格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桓雄이 화려한 英雄이고 絶對的이라면, 熊女는 연약한 女性이며 非絶對的(欽慕的)이다. 우리 말에서 「하늘이 안다», 「하늘이 알까 무섭다」 등의 表現을 日常語에서 흔히 쓴다. 여기서 「하늘」은 絶對的인 것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하늘」은 人間이 모르는 일도 전부 알고 있고, 地上의 人間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훑어보고 있으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은 「하늘」을 自然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神的인 存在로 認識해 왔음을 뜻하는 것이다.

桓因-桓雄-檀君으로 이어지는 三代記에서 이들의 出生地를 보면, 桓因과 桓雄은 天上이고 檀君은 地上이다. 하지만 檀君도 父系 血統에 따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山神이 된다. 이들은 우리 민족이 「하늘」에 가졌던 보편적인 思想을 반영하는 神的인 存在로 神話 속에 나오며, 地上의 人間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熊女와는 性格이 사뭇 다르다.

「三國遺事」의 기록에서도 桓雄의 이러한 英雄의인 絶對的이며 男性的인 性格을 잘 드러낸다.

- ① 人世를 구하려고 한다.
- ② 天符印 3을 거느린다.
- ③ 風伯·雨師·雲師를 거느린다.
- ④ 人間의 360餘事를 다스리고 教化한다.

人世를 구하여 弘益人間的 理念을 실현한다는 자체부터가 英雄的이고 絶對的이며 桓雄이 거느리는 많은 神만 보더라도 그렇다. 人間의 360餘事를 다스리는 일도 凡人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고 神的인 絶對者만이 人間을 教化하고 弘益人間的 理念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熊女는 桓雄의 이런 性格과는 반대로 女性的이고 人間的이며 非絶對的(桓雄을 欽慕)이다.

1. 神雄(桓雄)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빈다.
2. 神壇樹 아래서 아이를 배게 해 달라고 呪願한다.

기록에 나타난 熊女の 모습은 神的인 存在에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으로 되어 있다. 天界에서 下降한 神的인 絶對者에게 소원을 비는 熊女の 모습은 桓雄과 서로 相反되어 있다. 둘째, 이차적인 모습에서 桓雄은 떠나고 熊女는 버림을 받게 되는 性格이다. 일차적으로 桓雄과 熊女는 결혼하여 檀君을 出生(幸福)하지만, 결국은 離別하게 되어 熊女만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버리는 쪽은 桓雄이고 버림 당하는 쪽은 熊女이다. 이에 대한 說明은 桓雄의 不在와 관련하여 앞에서 究明하였으므로 再說明은 略한다.

세째, 桓雄의 不在後에 桓雄은 무소식과 연결되는 반면, 熊女는 기다리는 性格이다. 桓雄이 「假化」한 人間에서 神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熊女와 다시 해후가 있었는지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일단 熊女の 소원(孕生子)을 들어주고 난 후에 神으로 돌아가서 熊女와의 再結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說話 등에서도 아버지가 떠나고 있는 자식을 어머니 혼자서 母情으로 기운(예는 흔하게 보는 일이다).

桓雄이 이러한 무소식과 관련된다면, 熊女는 人間이 되고자 굴 속에서 21일을 묵하는 자체나, 아이 배기를 呪願하며 神壇樹 아래에서 비는 일 등 모두 기다림과 人間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의 情緒와 결부되어 있다. 精神的으로 肉體的으로 견뎌내야 하는 끈끈한 忍耐의 時間인 것이다. 또한 桓雄의 不在 이후에도 熊女가 桓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檀君이 成長하기까지 忍苦의 기다림이었음은 必然的인 것이다. 이것은 英雄의 一生에 있어서도 고난의 時期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40)</sup>

40) 英雄은 ①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② 비정상적으로 태어나 ③ 어려서부터 非凡했으나 ④ 일

네째, 熊女가 人間이 되는 일 등 고통과 相關을 맺고 있다면, 天上界에서 下降한 桓雄은 자신의 理念을 구현하는 등의 자신의 일을 실천하는 데에 따른 고통을 별로 받지 않는다. 사람이 되기 위해 썩과 마늘을 먹는 일, 햇빛을 보지 않는 일 등은 모두 忍耐와 기다림의 時間이라면, 人世를 탐하는 일, 熊女の 소원(孕生子 등)을 들어주는 일 등은 人間에게 자신의 뜻을 베풀고 教化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고통보다는 自我 實現이라는 뜻과 연결된다.

「人生은 苦海」라는 말이 있듯이 人間世界的 無秩序와 고통, 그리고 이를 教化하려는 神의 意味로 생각해 볼 수 있다. 聖書에서도 禁忌를 지키지 못하고 사과를 따 먹음으로써 人間은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를 教化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빈다고 하는 思惟는 熊女가 人間世界에서 人間이 되는 일 등의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桓雄과 熊女の 이러한 對立的 性格에서 檀君은 天上界인 父系 血統을 따라 나중에 山神이 되는 등 人間과는 다른 英雄的 人物이었다는 것으로 歸結해 볼 수 있다.

### 1.1.3. 「桓雄」과 「熊女」의 類型

桓雄과 熊女の 基本的인 類型은 桓雄은 天上界에서 下降한 神이고, 熊女는 人間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熊女가 桓雄(神)에게 밭어 아이 갖기의 소원을 성취하였다는 것은 桓雄이 絶對者였다는 말과도 相通한다. 또한 熊女는 地上界의 原理로 檀君=天上+地上이라는 意味와 연결된다.

桓雄과 熊女の 類型에서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男性과 女性이라는 점이다. 이 類型에서는 여러 가지를 類推해 볼 수 있다.

첫째, 桓雄과 熊女가 결혼하여 檀君을 낳았으므로 남편과 아내의 類型이다. 桓雄은 檀君의 아버지이며, 熊女는 檀君의 어머니이다.

둘째, 桓雄은 熊女에게 사랑하는 「님」과 같은 存在이다. 女子가 된 熊女에게 결혼해 주는 사람이 없자, 神壇樹 아래에서 간구하던 남자는 「白馬 타고 온 흑기사」와 같이 사랑의 대상이며 동시에 熊女에게 아이를 갖는 소원을 들어 줄 수 있는 存在여야 한다. 이 存在가 桓雄이며, 熊女가 기다리던 「님」과 같은 存在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桓雄은 君主 혹은 部族長의 意味와 연결되며, 熊女는 王妃 혹은 臣下나 部族長 妻의 類型이다. 弘益人間的 理念을 실천하기 위하여 風伯·雨師·雲師 등 여러 神을 거느리고 人間을 다스렸다는 意味는 統治者라는 뜻이다. 또한 뒷부분에 漢三郡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sup>41)</sup> 檀君이 古朝鮮이라는 國家의 建立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전의 桓因, 桓雄의 時代는 史的으로 아직 일정한 틀을 가진 國家로 정착되지 못하고 部族 혹은 氏族·中心의 時期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당지를 감안한다면 桓雄은 君

적 기아가 되거나 고난에 부딪혀, ⑤ 救出 養育者를 만나서 ⑥ 다시 죽을 고비에 이르렀으나, ⑦ 승리를 차지해서 영광을 얻는 것으로 一生을 정리하고 있는데, (張德順 등: 일의 책, p.38. 재인용.) 여기서 ④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41) 漢分置三郡 謂玄菟 樂浪 帶方

주라기보다는 아직 정치와 제의가 未分化된 部族長(혹은 氏族長)에 가깝다. 이 部族長도 部族을 統治하던 責任者라는 맥락에서 後의 君主의 意味와 연결되는 것이며, 아울러 민속학적으로 祭祀長이나 太陽神<sup>42)</sup>, 堂神 본풀이의 堂神으로 보더라도<sup>43)</sup> 桓雄은 統治者라는 意味와 相關된다. 祭祀長이라면 아직 정치와 제의가 未分化된 祭政一致의 사회에서 祭祀長은 部族長과 거의 同一人이라고 볼 수있으며, 마을 守護神의인 堂神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攬하고 다스리므로 堂神에게 안녕과 질서를 빈다고 하는 思惟 등은 넓게 혹은 좁은 뜻으로 統治한다는 意味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桓雄이 이러한 類型이라면 熊女는 部族長의 妻, 혹은 統治者를 도와 주고 補助하던 相對的 人物의 類型이라는 것은 必然的인 結果가 된다.

그러면 東明王神話에서도 解慕漱와 柳花의 關係를 통해서 桓雄과 熊女の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 보자. 이것 역시 세 가지 관점에서 究明하기로 하고, 究明된 것을 토대로 桓雄과 解慕漱의 모습을 다시 정리하여 「님의 詩歌」에서 「님」의 共通點과 比較하는 작업을 2. 英雄의 人物과 「님」의 相關性에서 說明하기로 한다.

## 1.2. 「解慕漱」와 「柳花」

「三國遺史」卷·高句麗條에 실린 解慕漱와 柳花에 대한 기록은 檀君神話에서 桓雄과 熊女에 대한 기록에 비하면 짧운데, 이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解慕漱

- ① 天帝의 아들이다.
- ② 柳花를 압록강가의 집으로 꾀어 정을 통한다.
- ③ 정을 통하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 (2) 柳花

- ① 河伯의 딸이다.
- ② 解慕漱의 꾀임에 빠져 정을 통한다.
- ③ 父母의 讒에 없이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를 꾸짖어 귀양을 가게 된다.
- ④ 이상한 알을 낳는다. 朱蒙<sup>44)</sup>

기록을 통해서 보면 檀君神話와 東明王神話는 特徵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그 特徵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42) 張德順: 「說話文學概說」, 一潮閣, 1984, p.108.

43) 玄容駿: 알의 책, pp.21~22. 참조.

44) 云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 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 鴨綠邊 室中知(私)之 而往不返 父母責我無媒而從人 遂謫居于此 金蛙異之 幽閉於室中爲日光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遂而照之 因而有孕 生一卵(下略.) 그런데 註를 통해 夫妻와 朱蒙은 異母兄弟라는 句節이 있으나 이는 略한다.

區分	檀君神話	東明王神話 <sup>45)</sup>
배경	산속	江(물가)
사건	기도로 해결	힘으로 해결
성격	내성적이고 靜的임	활차고 活動的임
비광	희망	日光에 의해 깨어남
출생	직접 태어남	卵生
禁문	없음(쑥, 마늘 등)	없음

전반적인 기록에 있어서 이 차이는 檀君神話가 古朝鮮의 建國과 관련이 있다면, 東明王神話는 高句麗의 建國과 관련이 있는 데에 基因한 탓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처럼 高句麗는 힘차고 活動的이며 활을 잘 쏘고 수렵 등 용맹하고 투쟁적인 性格을 가진 國家라면, 古朝鮮은 온화한 편이며 高句麗라는 國家의 이런 性格과는 색채가 다르다. 이러한 國家的 性格의 차이가 基本神話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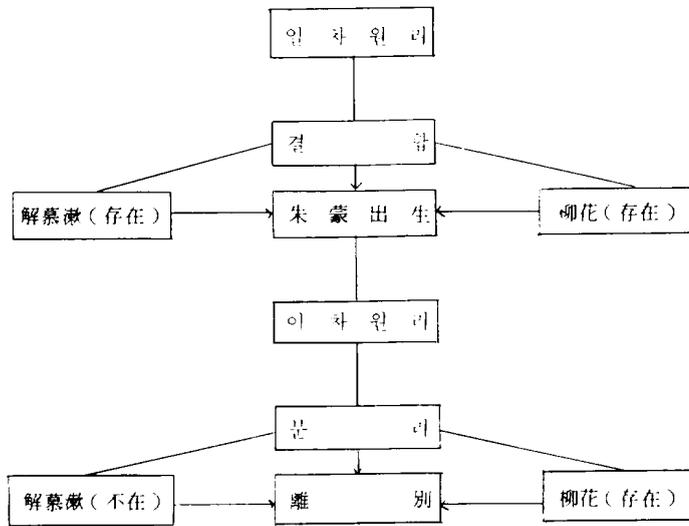
그러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解慕漱의 不在, 解慕漱과 柳花의 性格과 類型을 究明하여 보자.

#### 1.2.1. 「解慕漱」의 不在

解慕漱과 柳花가 만난 것에 대한 기록을 보면, 「誘我於熊神山下鴨錄邊室中知(私)之 而往不返」이라고 되어 있다. 解慕漱가 柳花를 꺾어 정을 통한 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而往不返). 우선 解慕漱과 柳花는 만나서 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解慕漱는 柳花를 남겨 둔 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關係를 좀 더 자세하게 圖式해 보면, <圖 3>처럼 나타난다. 일차적으로 解慕漱와 柳花는 서로 存在한 상태에서 정을 통하여 朱蒙을 出生한다(卵生). 그리고 이차적으로 解慕漱는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므로 不在의 狀況으로 因한 離別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朱蒙 出生은 앞의 <圖 2>에서의 桓雄과 熊女가 存在한 상태에서 檀君 出生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차적으로 桓雄과 解慕漱의 不在로 말미암아 離別의 構造로 자리한다는 것도 同一한 構造임을 알 수 있다. 단지 桓雄은 熊女가 아이 갖기를 祝願하는 것을 神으로서 동정하여 이를 들어 주었다면, 解慕漱는 직접 柳花를 꺾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東明王神話의 「熊神山」이란 기록은 檀君神話의 곰토테마즘과 같은 계보에서 이루어진 神話임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며, 가장 基本的인 神話의 局面은 아직 완전히 變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時代나 國家의 性格이나 흐름에 따라 變化는 있었으나, 아직도 熊女와 解慕漱를 기치는

45) 金鉉龍: 앞의 책, p.20.



〈圖 3〉

三代記는 天孫으로 기록에 나타나며, 解慕瀨의 不在로 말미암아 이차적으로 離別의 構造를 갖는 것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2. 「解慕瀨」와 「柳花」의 性格

解慕瀨와 柳花의 性格도 桓雄과 熊女의 性格처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解慕瀨가 英雄적이고 찬란하며 絶對적인 性格이라면, 柳花는 解慕瀨의 이러한 모습과 皮임에 빠져 그를 欽慕하는 연약한 女性의 性格이다. 解慕瀨의 皮임에 빠졌다는 것은 解慕瀨가 그만큼 용모나 행동에 있어 찬란하고 화려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皮임에 빠진 柳花는 結果적으로 水神인 河伯-柳花에 이르는 神的 存在이기도 하지만, 解慕瀨에 비하면 非絶對적이고 연약한 색채를 가진 女性임을 알 수 있다.

解慕瀨의 찬란하고 화려하며 英雄적인 性格은 解慕瀨 이야기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다.

태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환웅의 경우보다 더욱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다섯 미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홀승골성이라는 곳에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 뒤용은 대단했다고 한다.<sup>46)</sup>  
(가설: 필자)

둘째, 解慕瀨는 떠나고 柳花는 버림을 받는 性格이다. 解慕瀨는 柳花를 피어서 정을 통하

46) 趙東一: 「한국문학동작」 1, 知識産業社, 1982, p.70.

고 떠나 버린다. 하지만 이로 인해 柳花는 결국 버림을 받아 父母에게 쫓겨나서 혼자 朱蒙을 낳고(卵生), 키우는 모습으로 기록에 나타난다.<sup>47)</sup> 檀君神話에서는 桓雄이 「假化」한 人間에서 떠나고 난 후 熊女가 檀君을 키우는 것에 대한 기록이 記述되어 있지 않다면, 東明王神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자세하다.

세째, 解慕漱가 떠난 후 무소식과 연결된다면「而在不返」 柳花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결부되어 있다. 桓雄과 마찬가지로 解慕漱는 떠난 후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무소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기록에서 說明된 부분이 미흡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柳花는 떠난 解慕漱를 그리워하며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실마리이다.

네째, 解慕漱가 고통을 별로 받지 않는다면, 柳花는 고통을 많이 받는 性格이다. 柳花를 버리고 떠난 解慕漱는 柳花에 비해 큰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柳花는 ① 父母에게서 쫓겨나는 일, ② 金蛙가 방에 가누는 일, ③ 朱蒙을 낳고 키우면서 겪는 일 등 모두가 고난과 고통을 수반한다.

이렇게 보면, 檀君神話나 東明王神話의 桓雄과 熊女, 解慕漱와 柳花의 基本的인 性格의 局面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1.2.3. 「解慕漱」와 「柳花」의 類型

解慕漱와 柳花가 桓雄과 熊女와 다른 점은 桓雄과 熊女가 神과 人間의 存在라는 점에 비해 解慕漱와 柳花는 다 神的 存在라는 데에 있다. 우선 解慕漱는 自稱 天帝의 아들이며, 柳花는 水神인 河伯의 딸이므로 水神的 存在이다. 그런데 熊女도 꿈에서 人間化했으므로 完全한 人間에서 출발한 人間의 本性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動物에서 人間이 되었으므로 보통 人間과는 다소 다른 색채일 수밖에 없다. 또한 檀君은 山神이 되는 등 父系 血統을 많이 따르는데 비해 朱蒙은 父系와 母系 血統을 다 갖추고 따르는 人物이라는 점도 약간 다르다. 朱蒙이 도망가면서 엄수에서 고기와 자리가 다리를 놓으며 河伯의 손자임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母系 血統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며<sup>48)</sup>, 후에 新羅에 와서 물(海)을 중심으로 한 龍神이 많이 登場하게 된 神話의 變形을 갖게 하는 原因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解慕漱와 柳花를 통해서 桓雄과 熊女와 비슷한 類型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解慕漱도 神이고 柳花도 神이지만, 人間的인 神이라는 점이다. 解慕漱의 괴담에 빠지고 水神인 아버지 河伯에게 쫓겨나는 일 등 人間的이고 연약한 女性的 색채를 갖고 있다. 우리 民譚이나 傳說 등에서도 神(男子神 혹은 地上的 男子)을 사랑하게 되어 天帝(육황상제 등)의

47) 原文省略.

48) 行至淹水(今未詳)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孫 今一逃遁 追者垂及 奈何 於是魚龜成橋

미움을 받아 女神에서 人間이 되거나 벌을 받아 쫓겨나는 일 등의 話素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解慕漱와 柳花는 男性과 女性이라는 점이다. 解慕漱는 天上의 原理를 갖고 있는 男性이고, 柳花는 地上界(水上界)의 原理를 가진 女性이다. 또한 解慕漱는 柳花에게 있어서 사랑받는 對象과 같은 存在이다.

세째, 解慕漱는 君主의 意味와 연결된다. 天帝-解慕漱-東明王에 이르는 三代記이므로 天帝나, 朱蒙도 高句麗와 君主가 되었으므로 세습제와 같은 樣相이다. 따라서 解慕漱도 이러한 天上 下降의 세습 원리에 따라 君主의 意味와 연결되는 것이며, 柳花는 部族이나 國家間的 싸움 등에 따른 고난과 고통을 받던 王妃 등의 歷史的 象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解慕漱의 不在, 解慕漱와 柳花의 性格과 類型은 桓雄의 不在, 桓雄과 熊女の 性格과 類型에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時代나 國家의 特徵에 따라 다소 變異되었을 뿐, 우리의 基本 神話라 할 수 있는 檀君神話의 基礎가 東明王神話에도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하여 桓雄과 解慕漱, 熊女와 柳花의 모습은 두 神話에서 거의 일치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桓雄과 解慕漱의 이런 모습을 根據로 우리 詩歌에 나타난 通時的인 「님」의 모습과 比較하여 보자.

## 2. 英雄의 人物과 「님」의 相關性

桓雄과 解慕漱에 대해 究明되어진 것들을 공통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일차적으로 存在해 英雄(桓雄과 東明王 등) 出生과 관련을 맺었다가 이차적으로 不在한다. 두 神話에서는 이 일차적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
- ② 찬란하고 화려하며 天上에서 下降한 英雄의인 性格이다. 熊女와 柳花를 버리는 立場이며, 不在後에는 무소식의 이미지와 더불어 고통을 별로 받지 않는다.
- ③ 天上界의 神, 남편, 君主(部族長) 등의 類型과 연결된 男性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桓雄과 解慕漱는 「님」의 通時的 存在 樣相과 관련해서 Ⅲ. 4. 存在樣相에 나타난 「님」의 共通點과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桓雄과 解慕漱는 「님」과 일치되는 特徵을 갖고 있으며, 熊女와 柳花는 作中 話者와 일치되는 特徵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단지 神話에서는 不在前의 일차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면 「님의 詩歌」에서는 이 일차적 모습보다는 不在後의 이차적 모습을 강조하여 離別의 情恨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桓因-桓雄-檀君, 天帝-解慕漱-朱蒙에 이르는 三代記이므로, 「님」은 같은 血統의 桓因이나 天帝, 檀君이나 朱蒙 등의 英雄的 人物과도 合致되는 것이다.

우리 詩歌에서 通時的인 「님」은 神話 속에 나타난 天上 血統의 英雄의이고 神的인 人物의 작품 속에서 「님」이란 象徴으로 再現되어 반복된 것이며, 이것이 시대나 작가에 의해 조금씩 變異되고 각색되었을 뿐, 그 原初的 神話의 原型은 그대로 답습된 것으로 結論지을 수

있다. 桓雄이나 解慕漱 등 天上界의 人物이 詩歌에서 「님」이란 表現을 빌어 우리의 基本 神話를 收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실들을 토대로 金素月的 代表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진달래꽃」의 「님」을 究明할 차례다.



## V. 金素月の 詩에 나타난 「님」의 正體

「신달래꽃」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만약 「님」께서 내가 싫어해서 떠나게 된다면 나는 만없이 고이 보내겠습니다.
- ② 그 때에는 영변의 약산 신달래꽃을 한 아름으로 따다가 「님」이 가시는 길에 뿌리겠습니다.
- ③ 그러면 「님」께서는 내가 뿌린 그 꽃 뒤를 가시는 길을마다 자뿌리 밟으면서 가 주십시오.
- ④ 만약 「님」께서 내가 싫어해서 떠나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먼저 「님」의 通時的인 存在 樣相과 비교하여 살펴 보자.

### 1. 詩歌와의 關係에서 본 「님」의 正體

이 작품은 먼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라는, 떠난다고 하는 不在를 전제로 시작되고 있다. 현재에서 不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님」이 나를 싫어하게 될 경우라는 未來의 不在의 狀況이다. 그러므로 아직은 作中 話者인 나에게 「님」은 不在한 것이 아니다. 存在해 있는 것이다.

이것을 通時的인 存在 樣相에서 「님」의 不在에 따른 앞의 〈圖 1〉과 관련해서 살펴 보면, 不在前의 일차적인 모습이 된다. 「님」과 作中 話者은 아직 存在해 있는 상태이므로 作中 話者에게는 불안하긴 하지만, 幸福한 상태이다. 그러나 「님」이 만약 나를 싫어하게 되면, 「님」의 不在로 인해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 이차적인 離別의 狀況을 염려하며 내용을 構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님」의 不在 狀況에 대한 기초 설정은 通時的인 「님」의 存在 樣相과 별 차이가 없으며, 이차적 모습이 강조되어 있는 점도 同一하다.

「님」은 性格에 있어서도 찬란하고 화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作中 話者인 내가 뿌려놓은 꽃을 하나하나 밟고 지나갈 수 있는 存在라면 作中 話者에게는 絶對者인 存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징적으로 나를 버리고 떠나는 凡人을 위해 신달래꽃을 뿌린 만한 凡人(여기서는 女性의 立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作中 話者는 「님」을 화려하고 찬란하며 絶對的인 存在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님」이 떠나고 나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님」의 性格에 비하면 作中 話者는 나 보기가 싫어지는 이유 하나만으로 「님」을 떠

나 보내야 하는 연약한 女性的 立場이며, 「님」의 不在後에 기다림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招魂」 등의 다른 작품에서도 이 이차적인 기다림과 그리움, 고통과 연관된 情緒는 찾아볼 수 있다.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 이름이여!

「招魂」이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른다는 뜻이다. 여기서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은 이미 「님」이 不在中임을 意味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作中 話者가 不在한 「님」에 대해 不在前의 일차적인 모습을 생각하며 이에 대한 그리움과 離別의 고통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으로 表現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진달래꽃」에서도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克己의 忍耐와 이후 離別 다음에 이루어질 기다림의 情緒는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진달래꽃」에 나타나는 「님」의 性格이 通時的 存在 樣相에 나타나는 「님」의 性格과 同一함을 意味하는 것이다. 또한 作中 話者도 同一한 情緒를 共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님」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類型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한 究明은 金素月 詩 選반을 가지고, 혹은 「진달래꽃」과 같이 한 작품을 가지고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많은데, 그 일부를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임(조국)은 이 민족의 슬픔을 뿌리치고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3.1운동의 좌절이 더욱 이와 같은 절망적 비애를 고조케 했을 것이다.<sup>49)</sup>

...소월의 임이 근원적으로 식민지적인 삶의 상황에 놓여진 고향, 자연, 조국으로 연속되는 확산적 지평 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sup>50)</sup>

...개인적인 임과의 이별은 조국(고향) 상실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임 상실은 곧 故郷 喪失이었다.<sup>51)</sup>

(가점: 필자)

金素月 詩의 「님」을 종합해 보면,

- ① 祖國
- ② 故郷

49) 權雄: 「永遠한 韓國의 名詩解說」, 京元閣, 1977, p. 88.

50) 成基玉: “金素月의 「招魂」”, 「한국현대시작품론」, 文章社, 1981, p. 100.

51) 朴喆興: 앞의 책, p. 82.

### ③ 自然

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로 植民地的 現實과 결부되어 「님」을 說明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님」의 不在는 植民地的 現實이며, 「님」과의 再會는 解放과 연결되는 意味이다. 하지만 아직 「님」은 不在中이고 무소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므로 언제 作中 話者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植民地的 現實을 벗어나 解放과 같은 理想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다. 「님」이 不在에서 다시 돌아온다면, 「님」의 찬란하고 英雄的인 性格처럼 찬란하고 화려한 解放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님」과 作中 話者와 관련된 意味는,

作中 話者의 고통(「님」의 不在)=植民地的 現實(祖國, 故鄕, 自然의 상실)

「님」의 存在와 再會(作中 話者의 幸福)=理想(解放, 故鄕, 自然의 회복)

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님」의 意味한다고 보았던 ① 祖國, ② 故鄕, ③ 自然은 通時的 存在 樣相에 따른 「님」의 類型 안에 포함되는 것이며, 「님」의 不在에 따른 作中 話者의 모습도 通時的 存在 樣相에 따른 「님」의 相對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作中 話者의 위치는 通時的 存在 樣相과 마찬가지로 「님」의 不在에 의해 相對적으로 결정되어진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진달래꽃」의 「님」은 通時的 存在 樣相에 나타난 「님」의 共通點을 대부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詩歌에서 「님」은 古典作品에서 現代詩에 이르기까지 共通된 특성을 갖고 있으며, 金素月을 '國民 詩人'이라고<sup>52)</sup> 해왔던 것처럼 「진달래꽃」 역시 이 범주 안에서 창작된 셈이다. 결국 金素月은 「진달래꽃」에서 전혀 새로운 「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通時的으로 나타난 「님」의 象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진달래꽃」에 나타난 「님」은 金素月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자질이 아니며, 우리 詩歌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님」이 「진달래꽃」에서 再登場한 것으로 歸結된다. 따라서 「진달래꽃」에 나타난 「님」의 正體는 時代나 作家에 의해 약간의 각색은 있었을망정 우리 詩歌 전반에 나타난 「님」의 正體와 同一한 形態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진달래꽃」의 「님」에 대한 해석도 植民地的 現實의 기준 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님」의 通時的 存在 樣相과 관련하여 그 意味가 가지는 象徴성을 전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2. 英雄的 人物과의 관련에서 본 「님」의 正體

「진달래꽃」의 「님」이 通時的 存在 樣相에 나타난 「님」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이는 桓雄이나 解慕漱의 天上界의 人物과도 合致되는 特徵을 갖고 있는 것이다. IV. 2. 英雄的 人物과 「님」의 相關性에서 究明하였듯이 神話 속의 天上界의 英雄은 우리 詩歌에서 「님」이란 복합

52) 植南翼: 앞의 책, p.113, p.124. 참조.

적인 意味를 가진 象徴으로 나타나고, 金素月의 「진달래꽃」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답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실에서 비록 時代나 作家는 다를지언정 基本 神話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계승되어 왔고, 우리 詩歌에서는 「님」이란 형태를 빌어 表現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金素月 詩에 나타난 「님」은 이러한 基本 神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의 代表作 가운데 하나인 「진달래꽃」의 「님」은 그러한 基調 위에서 되풀이되어 온 창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달래꽃」에 나오는 「님」은 우리의 神話에 나타나는 天上界의 英雄的 人物과 관련된 무의식의 반복이며 여러 時代와 많은 작가를 통해 작품 속에 再現되어 온 것으로 매듭지을 수 있다. 아울러 金素月 詩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는 것도 基本 神話에서의 우리의 原初的인 경험이 무의식 속에 전수되어 왔다는 것과의 관련을 시켜 볼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神話에서의 이런 思惟가 우리의 巫俗이나 民譚, 傳說 등 많은 곳에 두루 흩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운연 중에 그것을 들었거나 배워 왔기 때문이다.



## Ⅵ. 結 言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表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項目區分	建 國 神 話		님 의 詩 歌		신 달 애 꽃	
	桓 雄 解 慕 漱	熊 女 柳 花	님	作 中 話 者	님	나
일차원리	存在	存在	存在	存在	存在	存在
이차원리	不在	存在	不在	存在	不在 (예정)	存在 (예정)
性	絶 對 的 (英雄的)	非絶對的 (欽慕的)	絶 對 的 (英雄的)	非絶對的 (欽慕的)	絶 對 的 (英雄的)	非絶對的 (欽慕的)
	피남	머림 받음	피남	머림 받음	피남 (예정)	머림 받음 (예정)
格	무소식	기다림 (그리움)	무소식	기다림 (그리움)	무소식 (예정)	기다림·그리움 (예정)
	비고통	고통	비고통	고통	비고통 (예정)	고통 (예정)
關 係 類 型	神	人間 (人間的 神)	神的 人間	人間	神的 人間	人間
	天上界	地上界 (水上界)	-	-	-	-
	絶對者	非絶對者 (欽慕者)	絶對者 (亡國者)	非絶對的 (亡國民)	絶對的 (亡國者)	非絶對者 (亡國民)
	男性	女性	男性的 (戀人)	女性的 (戀人)	男性的	女性的
	統 治 者 (部族長)	統治補助者 (部族長妻)	君主 (남년)	臣下 (아내)	-	-

<表 2>

우리는 이것을 基礎로 하여 크게 두 가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융의 「原型無意識」에서 우리의 가장 原初的인 경험은 과거로부터 전수된다는 말처럼 이 原型無意識의 象徴의 體系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神話이고, 이 神話적 體系로 나타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詩歌의 「님」이다. 「님」은 여러 時代와 많은 作家에 의해 과거로부터 전수되어진 우리의 原初的인 경험 가운데 하나가 작품 속에 반복되어서 나타난 것이니, 神話 속의 天上界의 人物과 共通點을 갖고 있다. 桓因—桓雄—檀君, 天帝—解慕漱—東明王 등의 매우 原型無意識적인, 이것이 詩歌에서 「님」이란 象徴語를 통해 表現되어 있다.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時代나 作家에 의해 조금씩의 각색과 變異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님」의 特徵은 神話의 英雄의 人物과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님」과 관련된 作中 話者는 熊女, 柳花 등의 地上界(木上界) 人物인 母系 血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詩歌에 나타난 「님」은 어느 한 個人의 창작이라기보다 原型에 대한 無의식 속에 再現되어 작품에 나타난 반복이며, 檀君이나 東明王 등의 天孫은 우리 詩歌에 나타난 「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별개의 것은 아니다.

둘째, 金素月의 「진달래꽃」에 나타난 「님」 역시 이러한 일련의 반복 가운데 하나이며, 金素月에 의해 창작된 「님」도 아니며, 우리 詩歌의 전반적인 「님」과 관련해서 無의식 속에 과거로부터 전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金素月은 우리의 이러한 原初的인 경험을 작품 속에서 잘 소화한 시인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끝으로 本 研究에 있어서 金素月과 관련된 一部 詩歌들을 通時的인 存在 樣相과 같은 맥락으로 살펴 보았으나, 우리 문학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님」을 究明하기에는 많은 작품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일부에 그쳤던 점, 巫俗이나 傳說, 民譚, 民謠 등의 口碑文學에 대한 검토나, 「春香傳」 등의 古典小說과의 相關性 역시 다루지 못한 점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많은 과제 가운데 일부이다. 또한 建國神話의 人物도 天上界와 地上界의 存在라는 空間과 거리의 문제가 있듯이, 「님」의 不在 및 存在와 관련하여 作中 話者와의 空間과 거리의 문제를 究明하거나, 神話와 서로 比較하지 못한 점 등도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 參 考 文 獻

### I. 論 著

- 姜永善: 「한국 동물 도감」, 조류편, 삼화출판사, 1962.
- 權 雄: 「永遠한 韓國의 名詩 解說」, 京元閣, 1977.
- 金根洙: 「時調研究」, 청록출판사, 1979.
- 金起東: 「國文學概論」, 進明文化社, 1980.
- 金南石: 「韓國詩人論」, 瑞音出版社, 1980.
- 金富軾: 「三國史記」, 金鍾權 譯, 新華社, 1983.
- 金時泰 編: 「韓國現代作家·作品論」, 二友出版社, 1982.
- 金烈圭: 「韓國의 神話」, 一潮閣, 1983.
- 김용직·박철희 편: 「한국 현대시 작품론」, 文章社, 1981.
- 김윤식: 「한국 현대문학 사전」, 일지사, 1979.
- 金鉉龍: 「韓國古說話論」, 새문사, 1984.
- 金顯承: 「韓國現代詩解說」, 關東出版社, 1972.
- 김희보 편: 「韓國의 名詩」, 종로서적, 1983.
- 檀君精神宣揚會 編: 「國祖檀君」, n.p. 1982.
- 閔丙勳 編: 「傳說 따라 三千里」, 東林出版社, 1975.
- 白樂晴: 「民族文學과 世界文學」, 創作과 批評社, 1978.
- 白南喆: 「세계의 별난 종교들」, 潤進文化社, 1980.
- 徐首生: 「韓國詩歌研究」, 螢雪出版社, 1974.
- 오탁번: 「韓國現代詩史의 對立的 構造」, 고려대박사학위논문, 1982.
- 李杜鉉·張壽根·李光奎 共著: 「韓國民俗學概說」, 學研社, 1983.
- 李商燮: 「문학 연구의 방법」, 探究堂, 1983.
- : 「文學의 理解」, 瑞文堂, 1983.
- 이어령: 「한국인의 神話」, 서문당, 1985.
-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81.
- : 「三國遺事」, 李丙壽 譯, 新華社, 1983.
- 張德順: 「說話文學概說」, 二友出版社, 1978.
- : 「韓國文學史」, 同和出版社, 1975.
- 等: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84.
- 趙南翼: 「現代詩解說」, 世運文化社, 1979.

- 조동일: 「한국문통사」 1·2·3, 지식산업사, 1982-1984.  
 ———: 「탈춤의 역사와 원리」, 弘盛社, 1983.  
 趙演鉉: 「現代文學概觀」, 二友出版社, 1983.  
 趙潤濟: 「國文學史概說」, 乙酉文化社, 1984.  
 조홍윤: 「한국의 巫」, 정음사, 1983.  
 全圭泰: 「情恨의 美學」, 正音社, 1972.  
 鄭炳昱先生 還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韓國詩歌文學研究」, 新丘文化社, 1984.  
 정병욱: 「한국고전지가론」, 新丘文化社, 1984.  
 鄭婉永 編: 「詩調創作法」, 中央日報社, 1981.  
 鄭漢模: 「韓國現代詩文學史」, 一志社, 1983.  
 ———: 「現代詩論」, 普成文化社, 1984.  
 鄭漢淑: 「現代韓國文學史」, 高麗大出版部, 1983.  
 「學術調查報告書」 第八輯,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1984.  
 韓國言語文學會 編: 「大學國語」, 螢雪出版社, 1981.  
 黃祺江 等: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2.  
 玄容駿: 「濟州島神話」, 瑞文堂, 1976.  
 Eliade·M: 「神話와 現實」, 이은봉 역, 成均館大出版部, 1985.

## 2. 論文

- 金光淳: “始祖神話의 樣相에 關한 研究”, 「어문논총」 제12호,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0.  
 金光植: “文學의 始源에 關한 小考”, 「京畿大學文學」 第三輯, 京畿大學 國語國文學會, 1982.  
 金宇鍾: “檀君神話의 詩的 意味”, 「現代文學」, 1958, 3월호.  
 金禹昌: “一切惟心 韓龍雲의 용기에 대하여”, 「실천문학」 제1권, 傳藝苑, 1980.  
 金益洙: “弘益人間의 理念에 關한 研究”, 「京畿語文學」 第一輯, 京畿大學 國語國文學會, 1980.  
 김 忠: “「군말」 속의 「남」에 대한 구조적 논의”, 「國語教育研究」 第四輯, 朝鮮大學校 國語教育科, 1985.  
 김 천: “萬海 그 永遠한 離別의 美學”, 「文藝中央」, 1978, 가을호.  
 ———: “偶像化와 先入見의 罪”, 「文學思想」, 1978, 8월호.  
 金興圭: “남의 所在와 진정함 歷史”, 「創作과 批評」, 1979, 5월호.  
 ———: “詩人인가 革命가인가”, 「文藝中央」, 1978, 가을호.  
 朴木月: “藥山の 神話해설”, 「現代의 文學家 9人」, 新丘文化社, 1974.

- 朴堯順: “高麗歌謠에 나타난 女心 特質과 그 原因攷”, 「崇田語文學」 제3집, 崇田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74.
- 朴哲石: “金素月論”, 「現代詩學」, 1981, 8월호.
- 徐首生: “空溪引新攷”, 「語文學」 7, 韓國語文學會, 檀紀 4294.
- 辛東門: “님의 沈默”, 「現代的 文學家 9人」, 新丘文化社, 1974.
- 오현일: “계절에 따른 감정의 변화: Johann Wolfgang V. Goeth의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와 松江 鄭澈의 <思美人曲>을 중심으로” 「比較文學 및 比較文化」 第三·四輯, 韓國比較文學會, 1979.
- 李慶致: “《님의 沈默》의 이미지 分析”, 「東岳語文論集」 第二十輯, 東岳語文學會, 1985.
- 李廷卓: “時調의 思潮의 考察: 黃眞伊를 中心으로”, 「安東大學論文集」 第六輯, 1984.
- 林永煥: “金素月詩 研究”, 「국어국문학」 제86호, 국어국문학회, 1986.
- 張允翼: “素月の 詩에 나타난 恨의 心理”, 「語文學」, 1975, 3월호.
- 趙東一: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 第十輯, 東亞文化研究所, 1971.
- 정경수: “단군신화의 현대적 고찰”, 「어문학교육」 제9집, 한국어문교육학회, 1986.
- 鄭漢模: “歌辭에 담은 戀君”, 「古典文學의 大家 13人」, 新丘文化社, 1974.
- 崔南善: “檀君古記箋釋”, 「思想界」, 1954, 2월호.
- 崔正錫: “素月과 萬解: 그 同質性과 異質性”, 「曉星女大論文集」, 第六·七輯, 1970.
- 韓永愚: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韓國文化」 3,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1982.
- 許 椿: “說話와 古小說의 虎”, 「연세어문학」 제18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 玄容駿: “檀君神話의 文學的 考察”, 「훈민崔正如博士頌壽記念論叢」, 啓明大出版部, 1983.
- 洪慶杓: “黃鳥歌와 龜旨歌의 象徵性”, 「東洋文化研究」, 第五輯, 慶北大 東洋文化研究所, 1978.

## Summary

### The 'Nim's study of Korean Poetry and myths.

-Diachronic investigation about 'Nim's of Kim So-weal's poems.

Kim Hee-chul

This study was written to solve 'Nim's (the man or woman who love) who appeared in Kim So-weal's poems. Practically many Nims have enter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From ancient songs and poems (poetry) to present poems, they and Kim's Nims have showed similar aspects that have been a trevous separation and the others. Hence, there was the object of this paper that I brought light on these subjects through the view-points of songs and poems, and heroic characters of myths (Dankun myth, King Dong-moung myth, and the others) orig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Nims of Korean songs and poems have been appeared repeatedly by poets of many ages, and these repetitions of Nims are one of many experients that Korean people have initiated from ancient age to present age. They have been mythic characters, restorations, and referred to Dankun and King Dongmoung. Merely many poets made mythic systems a little transfiguration in expressing Nim's symbol.
- 2) The Nims of Kim's poems also were one of these repetitions and restorations, and connected with them of Korean songs and poems, and heroic characters of Korean myths.